

PHOTO ESSAY

사진산책



서울시립미술관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교양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삶의 태도는 단정해지고 말과 행동에는 품위가 깃든다. 교양은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게 하고 사물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준다. 그렇게 삶의 태도와 언어의 품격을 가다듬는 힘은 감각과 표현 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빛과 구도를 다루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시간과 감정, 기억을 한 프레임 안에 엮어내는 창작 활동이다. 사진가의

시선 안에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만날 때 사진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설득력과 깊이를 지니게 된다. 사진가에게 교양은 장비나 테크닉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다. 그것은 폭넓은 예술적 관심과 독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서서히 쌓인다. 오랜 관찰과 사유를 거쳐 탄생한 사진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오래 머물게 한다. 교양은 좋은 사진의 필수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 시선을 깊게 만드는 밑거름인 것은 분명하다.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여덟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